

‘새것을 녹여 내어 옛것을 풀어내는’ 학자 - 박인기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 교수



박인기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 교수

질문자 강남욱(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때 2019. 7. 9.(화) 곳 서울시 서초구

학자로서 박인기 선생님의 연구는 미래 각성의 울림으로 다가왔다. 국어 교육계의 후학들이 하나의 이론 틀에 얽매이려 할 때, 또는 기능 교육이나 문학 교육이나 문법 교육이나를 놓고 왈가왈부할 때, ‘말글’과 ‘말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의 삶과 언어’를 중심으로 놓고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해 왔다. 그 촉구는 한편으로 원론적인 것이지만, 논거는 언제나 최신 학술 논리로 정밀하게 조직되어 있었다.

문필가로서 박인기 선생님의 글은 고아(高雅)하다. 사회의 여러 문제, 특히 교육과 인성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고 사회의 ‘어른’으로서 정제된 조언을 내린다. 그간 출간한 수필집에는 향수가 묻어나고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와 정감이 넘친다. 내용은 어떤 면에서 옛것인 듯하나 다양한 지면과

매체를 오간다. 젊은 ‘폐북 친구’의 글에 따뜻한 공감의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담벼락에 옮겨 짚은 단상을 남기며 소통한다.

교육자로서 박인기 선생님의 수업은 늘 변화했다. 퇴임하는 학기까지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해 보려 하였고, 타협하지 않았다. 예비 교사들인 교대생들에게 토론식 학습법으로 수업을 운영해 보려고 학과를 가리지 않고 후배 교수들의 조언을 구했고, 시행착오와 실패 과정도 솔직히 고백하곤 했으며, 성공한 순간의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다. 그런 동시에 박인기 선생님의 강의는 엄격하고 메시지가 분명하며 언어 교육의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논어》의 〈위정편〉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면 가이위사의(可以爲師矣)니라.”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박인기 선생님을 보면 이 말은 “온신이석고(溫新而釋故)여서 가이위사의(可以爲師矣)구나.”로 바뀌어 감탄의 울림을 준다. 선생님은 새것을 따라잡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어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답을 내기 위해 진지하게 새로운 것들을 고찰하고 해석하고 응용한다. 그리고 정밀하면서도 따뜻한 언어로 항구적인 가치의 소중함과 이를 재발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정연하게 풀어놓는다.

2017년 정년 퇴임 이후에도 활발하게 연구와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인기 명예 교수로부터 학문과 교육의 여정에서 경험한 통찰, 국어 교육과 인성 교육에 대한 고견을 청하고자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

강남옥 선생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먼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퇴임하신 후에도 학회에서나 다른 개인적인 일로 몇 차례 뵈었지만 이렇게 인터뷰 자리를 빌려 뵈게 되니 더 반갑고 또 흥미로운 기분이 듭니다. 먼저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여쭙니다.

박인기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로 노상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유를 잃지 않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양대학교에서 지난 1학기 대학원 강의를 맡아서 제가 가진 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 지점들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고, 또 젊은 신진 연구자들, 현장 교사들과 함께 교육적 실천에 대한 문제들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글을 읽고 쓰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읽고 쓰는 일은 나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어빈 알롬(I. Yalom)이 쓰고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이혜성 총장이 옮긴 《스피노자 프로블럼》이라는 소설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이성(reason)에 대한 재발견의 기회를 주었다고나 할까요. 감성과 편견의 숨은 코드를 보았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만남과 소통의 힘이 사람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목격하면서도 의미 있게 보여 줘서, 밑줄을 치고 구석구석에 메모를 하며 읽어 나가고 있어요. 또한 퇴임 후에 내려고 묵혀 두었던 책이 두어 개 있어서 그 일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의 교육 문화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육 기관 운영에 참여도 하고 있고, 또 두루 자문 역할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옥 예상대로 여러 일들로 바쁘게 지내고 계셨네요. 선생님, 그럼 몇 가지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여쭙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교대에 재직하시면서 오랜 시간 예비 교사들을 양성해 오셨고, 교수가 되시기 전에는 교사로 재직하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국어 교사로서 재직하실 때, 또 미래의 교사가 될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중점을 두신 것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박인기 제가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언어의 확장된 작용’을 경험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좀 딱딱하긴 한데,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학교 교

육에서 국어 교과가 담당하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기능적인 문식성(리터러시)이 궁극적으로는 삶 전체에 작용하는 언어 사용 문제를 고민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확장되어야 하고, 교육을 통해 이를 실천적으로 경험해 주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국어 선생이라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언어적 체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을 언어생활로 해석해 본다면 사회적으로는 ‘말 살이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우쳐 가는 것이고, 개인 내면으로 뻗어 나간다면 ‘말 사용의 묘미를 알고 그 지평을 스스로 넓혀 가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언어 기능의 문식성(리터러시) 위에 개인의 인성, 환경과 문화, 상황적 맥락을 통합하여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더 성숙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이 지평을 넓혀 간다는 맥락이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매체 안에서 기호, 하이퍼텍스트, 그림, 만화(카툰), 영상 등 다채롭고 복합적인 문식성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통합적이고 확장된 경험을 요구합니다. 저는 ‘말 살이 지식(경험)’을 유기적으로, 또 자기 주도적으로 확장하여 ‘말 살이의 지혜’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에 제 교육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글쓰기 체험’을 방법론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저 형식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만의 언어로 엮어 내는 과정 자체가 언어의 확장된 작용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니까요.

강남옥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어 교육은 수많은 변천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조금 전 선생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사회적 맥락,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국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강단에 계시면서 생각하셨던 국어 교육

의 변곡점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국어 교육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겪을 것이라 내다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인기 국어 교육, 더 좁게는 국어과 교육에서 가장 큰 변곡점은 저의 견해로는 분명 5차 교육 과정의 입안과 시행입니다. 변곡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대혁명과 같은 전기가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때 국어 교육은 기존의 흐름과 틀에서 명백하게 구별되는 몇 가지 이론과 방법론을 채택했습니다. 독본(讀本)과 정전(正典)의 관성이 강하던 시기에 기능주의 언어 교육관을 시도했고¹, 언어 학습의 인지학적, 교육 심리적 이론을 구체적으로 도입하여 지지대로 삼았습니다. 지식의 단순 암기를 지양하고 학습자 전략과 같은 측면들도 연습이나 활동에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구현하기 시작했지요. 이후에 6차와 7차 교육 과정, 또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 과정으로 바뀌어 나갔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교육 과정은 5차 교육 과정에서 설계하고 시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차 교육 과정이 1987년에 처음 고시가 되어서 1989년~1992년 사이에 각급 학교에 적용되었으니까 이제 대략 30년이 흘렀네요. 그리고 이렇게 한 세대 정도 유지된 국어 교육의 흐름을 다시 바꾸어 보려는 의식이 저는 지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건 조금 뒤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저는 이 5차 교육 과정 변혁기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교육개발원 국어 교육연구실²을 이끌던 실장님이 노명완 선생님(현 고려대학교 명

¹ 이 시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최초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3종 교과서로 분리된 바 있다. 이러한 점은 이 5차 교육 과정의 기능주의적 사고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고 하겠다.

² 이 업무 영역은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연구실 및 교과교육연구실 등으로 이관, 재편되어 있다.

예 교수)이셨고, 이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 추이를 면면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자장(磁場)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명완 선생님은 매 주말마다 세미나를 열어서 연구원들과 함께 기능주의와 인지 심리학에 바탕을 둔 언어 교육 이론과 교수 방법론을 공부하고 그 필요성을 설파(說破)하시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인문학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사회·문화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국어 교육을 연구해 온 저에게는 그 논리가 생경하고 때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지만, 이것이 국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여하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990년에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처음 부임하고서, 저는 새 교육 과정인 5차 교육 과정과 기능주의 관점의 국어 교육에 대해 마치 전도사처럼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저는 문학 교육을 전공했지만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기능주의적 국어 교육의 실천과 현장 적용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 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퇴임을 앞둔 시점에 만들어진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아까 질문한, ‘앞으로 전개될 국어 교육의 변화’를 말해 주는 사건이자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 과정을 막 접했을 때 느낌이, 그간 한 세대 이어져 온 정교한 기능주의 국어 교육의 패러다임 속에서 보자면 다소 성기고 막연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 역량’, ‘역량 중심’은 나올 때가 되었고 언젠가 나와야 했을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존재를 앞자리에 두는 단계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어 교육이 어학이나 문학에 관련한 지식 전수에 가까웠다면 5차 교육 과정을 전기로 언어의 기능적 특성과 교수 학습의 인지적 체계를 전면으로 내세우게 되었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계기로 국어(언어)를 경험

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학습자를 우선으로 놓고 그 학습자가 급속도로 빨라진 사회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차원의 지식(knowledge)과 수행(practice)의 역량이 필요한지를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온 겁니다. 교육 과정 적용의 초창기라 아직 과거의 교육적 관성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막연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과, 교과, 기능 등으로 촘촘하게 나누어진 분절적인 사고를 넘어, 융합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방향이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강남옥 선생님께서 마침 언급해 주신 ‘융합’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주제를 이어 조금 더 추가해서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문들과 융합하는 데에 국어 교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 교육의 미래 전망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국어 교과가 다른 학문들과의 융합에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러한 목적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기 우선 제 얘기가 다른 학문과 교과가 서 있는 자리를 좁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한 말을 누구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누구와 누가 합칠 때 누가 이기고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느냐와 같은 쟁점 논리가 없을 때 융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 사회의 경제 논리 안에서, 또 정밀한 미시 구조를 탐구해 가는 구조주의 분과 학문의 시대 안에서 교육은 각각의 학문 영역이 반듯한 병행이자 평행의 구조로서 개별 교과 학문을 접하고 학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중 하나를 택해 전공 교육을 받아 각자의 분업 전문성을 갖추고 살아가면 됐지요. 시대의 관성은 교육에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 있고, 국어 교육 역시 여러 교과 교육 가운데 1/N로서 제도화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이렇게 교과가 금을 긋고 벽을 치고 있을 게 아니라 학습자(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교과를 재구성하고 재조직하는 과정에 작용을 해야 진정한 교육적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저의 이 생각은 요즘 자주 회자되는 4차 산업 혁명이나 그와 관련된 논의들로부터 촉발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근본적이고 인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받은 지식과 경험을 삶의 과정에서 통합하고 재편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어’는 지식과 경험을 부단히 매개합니다. 사고 또한 언어로 매개되면서 발달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언어를 다루는 국어 교과는 경험의 융합, 지식의 융합, 학문의 융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매개적 기능과 작용’에 더 많은 교육적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읽기와 쓰기는 그 내적 과정에 매개 절차(프로세스)가 작동합니다. 국어과 교육이 아닌 교과에서도 읽기 활동과 쓰기 활동이 주류를 이룹니다. 과학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사회 현상을 배우는 장면에서도 읽기로 지식을 익히고, 쓰기로 생각을 정교화합니다. 그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술한 언어들이 매개의 그물망을 형성하며 학습을 심화해 가는 것입니다. 국어과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역량을 길러 주는 교과입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언어는 배움의 도구입니다. 언어로 학습의 경험을 쌓고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언어’로 앎을 평가하는 데에 이릅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언어만큼 교수의 도구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수자가 지식(기능)의 개념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수준 높게, 격조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도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안에는 학문이 전수되고 평가되어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제된 언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학문을 만나게 하는 소통의 매개로서 언어를 감당하는 교과

는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융합의 매개로서 언어는 말과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상 언어와 같은 넓은 차원의 언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교과는 앎과 인식의 융합에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어 교육’과 ‘언어 교육’ 사이의 차이를 짚어 내고 또 이를 명확히 별려 둘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언어 교육’이라는 취지에 더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N로서의 교과인 국어과가 다른 교과와 배타적으로 갖게 되는 교육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교과를 매개하고 해석하고 전이시키고 재해석하는 차원에서 중시할 수 있는 언어 교육의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어 교과가 이 둘을 모두 내용론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교과 패권’ 식의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교과에서도, 예컨대 과학과에서나 사회과에서도 그 학문 언어와 교육 언어에 대해 국어과와 통합적으로 연구·실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국어 교과도 언어의 매개적 기능을 발달시키려면 다른 교과로부터 수용하고 받아들여 융·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융·통합은 누가 주도하고 누가 핵심이 된다는 취지를 넘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습자의 삶’을 그 지렛대로 써야 할 것입니다.

강남욱 선생님께서는 문식성을 두고 단순히 글을 해독하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읽기와 쓰기 행동이 갖는 의미와 가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식성의 의미를 보다 확장하여 인식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읽기와 쓰기의 의미와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박인기 제가 2002년 겨울인가에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을 국어 교육계에서 제기한 적이 있어요.³ 그런데 이 연구가 또 의외로 인용이 많

이 되면서 꾸준히 후속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서로 짐작하고 증명하고 채우면서 학술적 소통이 일어나긴 한 모양입니다. 써 놓고 보니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말도 많았지만, 제가 이걸 쓸 때 나름대로 궁리했던 생각은,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이해하고 표현한다고 할 때, 이 소통이 일어나는 ‘문화라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을까, 문화에 대한 소양과 문화의 맥락을 헤아리는 능력이 텍스트로 된 문자를 해독하는 좁은 의미의 문식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뒷받침하는 건 아닐까 하는 단상들이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문화 공부를 좀 하면서, 국어 교육의 현장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교육의 문화’, ‘언어의 문화’, ‘소통의 문화’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매체 언어니 통신 언어니 하이퍼텍스트니 하는 담론들이 문화를 제대로 짚지 않고서는 잘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또 다른 계기로는,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당시 국어 교육계에서 국어 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이라는 게 상당히 뜨거운 주제여서 자연스럽게 제 관심이 흘러가기도 했지요. 이 ‘맥락’은 2007년 고시된 국어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에도 전격적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사족으로 말하자면 이 ‘맥락’이라는 용어는 내용이 명쾌하지 않고 교육적 내용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현장 반응들도 있고 해서 그 다음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퇴출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도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국어 교육에서 교육 내용의 한 범주로 강조했던 이 ‘맥락’은 문화적 문식성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혼

3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연구》 15, 국어교육학회, 23~54쪽.

히 언어를 통해서 삶과 인식을 넓혀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요체는 ‘맥락을 풍부하게 거느린 언어’를 만나면서 내 삶의 영토나 지도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식성,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말이 처음 개념화하던 때에는 언어 그 자체를 기준으로 써 왔는데 요즘 둘러보니 모든 지식 분야에 다 문식성(리터러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매체 문식성은 이제 아주 보편화되었고, 과학적 사고,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세계 시민성, 예술적 안목, 코딩을 위한 컴퓨팅 사고, 성인지각수성 등등 다양한 분야에도 문식성이라는 말이 이제 흔히 따라오는 걸 봅니다. 이게 아까 대답한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 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식성 교육(literacy education)’은 이러한 백화제방(百花齊放)과 다양한 문식성의 시대에 일종의 ‘허브 공항’이나 ‘협력 기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좀 거슬린다면, 수많은 문식성이 아름답게 협응할 수 있는 토양으로서 문화적 문식성의 역할을 기대해야 한다는 정도의 표현이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남옥 사회·문화적 소통에 필요한 문화적 문식성은 기존의 문식성보다 그 범주가 더 넓을 텐데요. 문화적 문식성이 국어 교육 현장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요?

박인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부분 부분 나누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문식성을 논할 때는 ‘문자’라는 부호 체계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염두에 두어 왔는데, 그런 접근은 사실 좁은 개념의 문식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읽고 쓰는 능력들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쌓아 나가느냐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었지요. 문식성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글을 아는 존재로만 국한

하지 말고, 문화적으로 참여하고 생산하고 수용하고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 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으로서는 문화적 참여와 소통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학생을 발달시켜야 하는 책무가 생겼지요. 지금 세상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세상은 자발적이든 그렇지 않든 내 삶 속에서 문화적 참여와 소통을 필수 불가결 한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말로 하니 좀 거창해서 그렇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문화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발달에 맞추어 문화적 각성이 현장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언뜻 현장과는 떨어진 문제라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국어 교육의 전문 인력, 전문 학자를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포로 거느려야 국어 교육이 새로운 변화에 질적인 대응을 하면서 현장을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사를 양성하는 문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강남옥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한번 매듭을 짓고 이제 좀 다른 주제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청소년 언어 순화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서 욕설 문화가 두드러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기 우리 사회에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 문제가 잠복해 있습니다. 물론 욕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부추길 일도 아니지요. 권장할 일은 더더구나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마치 죄를 심판하듯, 너무 규범주의 관점에서만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욕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몰아서, 욕하는 청소년들을 징계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적’ 입장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를 우리 문화

의 생태 변화에서 일어난 현상으로서 받아들이려는 관점을 가지면, 다소 유연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욕설 문화가 두드러지는 원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원인 분석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회·문화적 현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현상은 청소년들의 현상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현대사에서 겪은 억압과 권위의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분출되고 환류하는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권위적, 규범주의적 지도 관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생태와 삶과 문화를 이해해 주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문화주의적 접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짐작하는 다른 원인 하나는, 형이상학적 원인이랄까, 여하튼 철학적 원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삶은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어서 삶이나 생활의 '총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랄까, 다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삶의 총체성이 유지되고 담보되던 시절, 그러니까 신화의 시대에는 개체의 정체성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정체성 국면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렇게 살아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학문을 닦는 지식인인 교수들도 어느 국면에서는 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불가피하게 지니고 살게 하는 사회입니다.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 분화가 심화되면서 삶은 더 고단하고, 짜증이 나고, 남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해받는 것도 더 어렵게 됩니다. 어느 현대인이나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세대가 바로 청소년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청소년

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뇌하는 때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가 증폭시킨 파편화된 사회의 비인간적 가치에 더 나쁜 영향을 받는 때니까요.

강남옥 청소년 언어 순화와 관련된 캠페인이 그간 많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두드러지는 실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보다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인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청소년 언어 순화에 대해 생태적인 접근, 문화주의적인 접근을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일거에 뜯어고친다는 차원의 규범적 접근에 대해 반대해요. 제가 국가 차원의 법 제정을 얘기한 것은 욕설을 쓰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자는 차원도 아니었고, 요즘 종종 논의되는 차별 또는 혐오 금지법에서 다루는 차원과도 다른 것이었어요. 질문하신 사항은 아마, 2011년 말인가에 제가 교육부와 교총 등이 함께 마련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학술대회(콘퍼런스)’에서 제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제화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은 욕설을 금지하도록 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그런 법이 가능할 수도 없겠지만) 학생의 언어문화, 나아가 전 국민의 언어 습관을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지표 같은 것을 마련해 보고, 이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법제화하고 공표하여, 국민 모두가 일정한 시기마다 한번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 조사를 하듯 ‘국민의 언어사용 실태 백서’를 낼 수 있도록 국어 기본법이든 어떤 법률에 명시해 준다면 그것을 근거로 삼아 정책도 개발하고 주무 기관도 움직이고 해서, 그렇게 우리의 언어 사용 문화를 돌아보며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는 경험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의 방법론으로서 실제 작업을 한 것이 대구 교육대학교 박창균, 윤준채 선생님 외 여러 선생님이 함께 고민하여 만든 ‘언어습관 자기진단도구’⁴입니다. 이러한 계량적 논리가 갖는 제한점도 있겠지만, 실천적인 노력으로서 회고해 보고 싶습니다.

강남욱 아, 선생님. 그랬군요. ‘법제화’카를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방법 외에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언어를 순화해 사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인기 청소년들은 어떤 면에서 욕설 언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해 주면서 시작하는 게 청소년 언어 순화의 방향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찬찬히 설명해 나가야 하지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이 드는 일입니다.

공이 드는 일이겠지만 한 가지 안정적인 방법은 ‘읽기와 쓰기를 고밀도로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청소년들의 욕설 문화는 그 출발점이 구어의 영역인데, 학생들이 읽기와 쓰기를 밀도 있게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 뭔가 사용역(使用域)이 다른 언어의 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줍니다. 읽기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마음이 가는 대로 문학 작품으로 얘기하면, 저는 좋은 문학 작품은 욕을 ‘극복’하게 해 준

⁴ 이 자료는 교육부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언어문화개선’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http://kfta.korea.com/language01.html>)

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일례로 홍명희의 《임꺽정》이나 황석영의 《장길산》은 말 그대로 욕의 향연, 욕 사전에 비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끝까지, 나름대로 자신만의 감동을 가지고 읽어 낸 학생들은 이 책을 읽고 자신이 온갖 욕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과 사회와 현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욕하는 인간’을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계급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제대로 읽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욕을 쓰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주변에 욕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나는 ‘책을 통해’ 이런 욕설 언어들 다 봤지만, 그 욕에 담겨 있는 사회와 인간을 이해했을 뿐, 욕 그 자체에 이끌리는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자아를 대견스럽게 고양해 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밀도 있는 읽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천적인 방법은 학생들을 끊임없는 토론의 장안으로 끌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토론에 무슨 절차를 두고 규칙을 얘기할 건 아닙니다. 교과와 상관없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면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과정에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내포되고 어우러집니다. 우리 교육이 이러한 훈련을 좀 더 정밀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실천할 때, 더불어 이러한 토론의 경험 후에 체험 학습이 뒤따라올 수 있게끔 해 줄 때 저는 장면에 따라 장소에 따라 대상에 따라 언어를 정제하거나 순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옥 선생님께서는 교육자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국어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 외에도 인성 교육 실천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언어와 인성의 관련성, 그리고 인성 발달에 필요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인기 저는 인성의 발로(發露)가 언어이고, 평소의 인생관과 인성이 바
 께로 표출되는 것이 그가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언어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왔고, 이를 저의 문제의식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성의 됬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기준 중 앞자리에 말과 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 교육 평가 방향은 말을 통해 한 사람에게 내재된 인성
 을 고찰할 수 있는 교육 기제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인성과 관
 계없이 꾸미고 분식(粉飾)된 언어들에 오히려 더 많이 주문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인성 발달에 필요한 요건으로 ‘글쓰
 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일견 보기에 좀 부자연스럽고 고루한 사
 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사 장교로서 복무하던 시절 의무적
 으로 써야 했던 ‘일기 쓰기’는, 저 스스로의 지위, 신분, 사명, 책임
 을 반복적으로 짚고 저의 인간적인 됬됨이를 형성하는 어떤 방향
 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진정됨이 없는 형식과 의무가
 되지 않게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겠습
 니다만, 때로는 인내하고 주어진 주제를 숙제로 안고 고민하는
 과정 안에서 인성 변화의 기제는 작동합니다. ‘쓰기’라는 행위
 가 갖는 자기 도야적 체험,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밀고 가는 수
 행, 그리고 쓴 글을 바탕으로 다시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토론하는
 세 가지 층위가 삼위일체가 된다면, 인성을 가꾸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요.

강남욱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저 역시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마지막으
 로 국어 교육계의 원로이신 선생님께 오늘날 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박인기 국어교육 현장에서 여러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애쓰는 여러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교육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달라지고 있고, 시대가 던지는 과제에, 국어 교육이 대답해 나가고 있다고 믿어요. 다만 질문을 하셨으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얘기하자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분과적 지식에 대한 강조가 여전히 우리 국어 교육의 진로에 어떤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분과적 지식 체제 때문에 국어 교육 학자 집단에서 구성하고 있는 교육 과정 콘텐츠와 국어 교사 집단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 과정 콘텐츠가 유리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사 집단이 가진 콘텐츠는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어 교육의 이론과 협응하지 못하면, 자칫 일회적 실천이 되기 쉽습니다. 만약 국어 교육학이 지나치게 분과 분화된 체제로만 되어서 현장의 활동들을 이론적 원리로 통어하지 못한다면, 그 국어 교육학은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잘못된 입시 사태에 대하여 국어 교육은 어떤 미래 지향의 의제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국어 교육과 입시 정책의 선순환 호응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이를 교육 과정과 입시 제도 안에 녹아들게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문제 풀이식 교육이 국어 교육에서도 강력한 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어 교육은 교육학과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등의 소양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하고, 국어 교육의 내부 문제 중 국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들을 없애는 교육 과정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분과적 지식의 무게 때문이라면 분과적 경직성을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국어 교육이 사회와 더 폭넓게 소통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책 안 읽는 문화’가 저에게는 시급한 문제라고 여겨 집니다. 읽고 흥미하고 이를 나누고 토론하는 문화가 우리 언어생활의 향상을 위해,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인성의 함양을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미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분과적 지식에 대한 강조, 또 문제 풀이식 교육 등이 여전히 큰 영향을 갖는 국어 교육의 현실에서 다양한 읽기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은 자꾸 뒷전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강남옥 선생님 말씀을 통해 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 들었습니다. 긴 시간 여러 주제에 대해 진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연구나,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기 오늘 강남옥 선생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했던 첫 얘기로 돌아왔네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퇴임 후에 할 일로 남겨 두었던 두 가지 저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동(感動)’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가 언젠가 좀 더 두루 살펴보고 싶었던 주제는 ‘감동’의 요체와 실제, 그러니까 ‘진정한 감동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감동이 아닌 가짜 감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퇴임 후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국어 교육학에 몸담아 왔던 지난 시간을 반추하고 성찰해서 ‘교과의 미래’를 구상해 보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중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 사회는 지금과 같은 교과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과 형태는 생각보다 빨리 종말을 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자로서 분석하고 성찰해 온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교과의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 보고 싶습니다.